

□ 영육농장 □

영육농장은 미국 게인스 빌 회사로부터 육계 가공시설 일체를 도입 현대식 대규모 도계공장을 설치, 1일 8시간 가동으로 육계 8,000~12,000수를 완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그간 계속 건립해오던 종합양계센터(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353번지)를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600평으로 71년 3월 경에 준공할 예정인데 이 양계 센터 지하실은 부화장, 1층은 영육농장 생산물 판매장, 2층은 농장 본부, 3층부터 5층까지는 축산 상담실, 가금육종 연구실, 양계 기술지도 상담실 등 양계 분야의 종합적인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시설을 완전히 갖추 양계 업계에 획기적인 공헌은 할 것이 기대된다.

한편 전 한국사료 전무로 계시던 맹범식(孟範植)씨가 지난 10월초 영육농장 기획실장으로 부임하여 농장 운영에 충실을 기할 것이다. (본지 지난 11월호 영육농장 기사는 오식이었습니다.)

□ 한국가금협회 월례강습회 □

한국가금협회는 지난 11월 7일 신촌 축협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양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중 월례 강습회와 월간 양계 창간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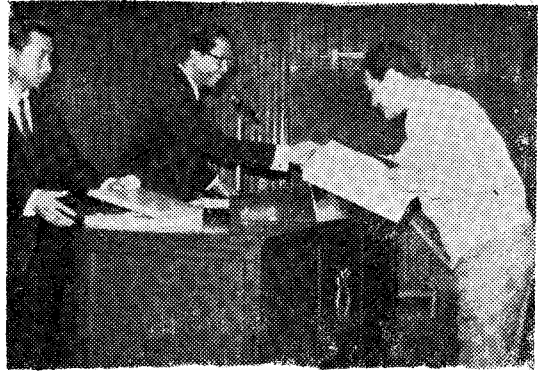
월례 강습회는 한인규(서울농대) 박사의 기초 양계 강좌와 서울시 황인옥 계장의 고시(告示)가 있는 다음, 최창해 가금협회 상무의 사회로 이창열, 김영환씨의 일본편, 강금노, 정동현씨의 구라파편, 미국, 캐나다편에 김원복, 이필용씨가 나오셔서 좌담회를 가졌다.

이어 월간양계 창간 1주년 기념식으로 지난 1년동안 가금협회와 월간양계의 발전에 공이 많은 분들에게 감사장과 감사패를 수여하고 작별일 파티를 가지고 끝냈다.

감사장과 감사패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제일산업(주) 이용규, 유한양행(주) 조권순, 한미제약(주) 홍병규, 영육농장 김영희, 소신중계원 이필용, 천호부화장 이계조, 대한사료(주) 홍석희, 흥성사료 정태원, 서울농대 한인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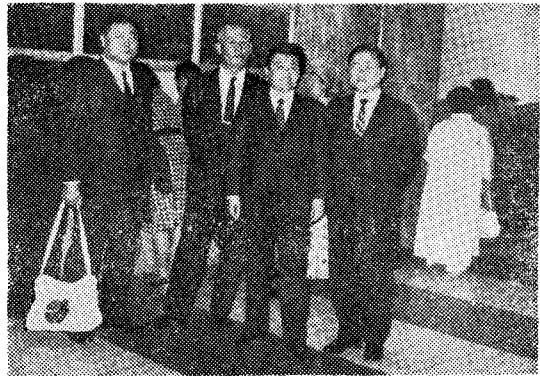
신종축장 전무 임병규등 제씨이다.



(감사장을 받는 소신중계원 이필용사장)

□ 유윤수, 김춘수, 정태원, 서한범씨 도미 □

사료협회 부회장 유윤수씨, 한국 과학기술 연구소 동물사로 연구실장 김춘수 박사, 흥성사료 사장 정태원, 농림부 사료과장 서한범씨는 NRA와 콘티넨탈 곡물회사의 초청으로 미국의 유지업계와 축산관계 업체를 시찰차 1개월 예정으로 지난 11월 7일 오후 4시 판·아메리카 비행기로 출국하였다. (사진은 동시찰 단일행)



■ 제11회 농업기술자대회 성료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대학교와 시민회관에서 제11회 농업기술자 대회를 가졌는데 연 인원 5,000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첫날은 전국대학교에서 전국 독농가들의 독창적인 채란양계, 부로일터양계, 한우 낙농, 양돈 등 17개 분과의 농업기술 발표와 농기구 전시를 마치고 제 2일 시민회관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 농업기술상 시상)이 있었는데 시상자는 농업경영 기술부문 본상에 최문환(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천현리 선린촌)목사, 장려상에 조정기(전남 광산군 대천면 승촌리)씨, 농촌 지역사회 개발부문 본상에 양단옥(전북 임실군 임실면 장계리)씨, 농업생산 기술부문 장려상에 박수근(경북 금릉군 감천면 양천동)씨, 오칠목(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토리)씨 였으며 농림부 한갑수씨의 정부의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수출농업의 발전이란 제하에 강연이 있었다.

한편 MBC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MBC 유포공소를 공개 녹음하고 오후에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모의 국회와 농민위안 잔치를 베풀었다.

■ 흥성사료 양계관리 지침서 발간

흥성사료는 11월 20일경 “양계관리 지침서”라는 수첩크기의 소책자를 5,000부 정도 발간 일선 양계가들과 관련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수첩내용은 영양관리(서울농대 한인규 집필), 질병관리(가축 위생 연구소 박근식 집필) 일반관리(서울 농대 오봉국 집필)로 대별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양계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경북축산(주) 일본 三井物産과 합자 □

경북 개발(주)는 일본의 三井物産과 합자, 부로일러 생산판매 및 사료회사를 설립하는데 합의 지난 9월 16일 정부로부터 축산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으로 인가가 나와다.

경북축산(주)의 사장에는 경북개발(주) 사장인 김교식씨가 취임하고 일본 삼정물산에서는 취체역과 감사역 1명씩을 파견하였다. 자본금은 18,000만원(일화 21,600만円)으로 경북개발(주) 66%가 일본 三井物産이 34%의 출자비율로 되어있다. 대구 교외에 부로일러 처리공장과 사료공장을 설립하고 부로일러 처리기술은 三井物産과 영국 고든·존슨사의 합자회사인 일본 고든·존슨이, 사료제조 기술은 三井物産계의 일본 배합사료 회사가 기술지도하는데 이는 부로일러 인테그레이션(수직통합) 조직의 한일합자 제 1

호가 될 것이다.

□ 한국가금협회 부산경남지부 사무실독립 □

한국가금협회 부산경남지부는 지부장 이병달 교수(부산 동아대 농대교수)와 독지가들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29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667번지(전화 ⑥ 4909)에 독립된 사무실을 개소하고 앞으로 활발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매달 정기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는바 11월 강습회로 11월 7일 오후 2시 종합 양계센터 옆의 서면 동보 유치원에서 이병달 교수, 김용두 교수, 김을겸 선생의 강의가 있었다.

□ 등서축산 상사 □

◎ **횃사 협의회 총회** : 본 협의회 총회가 1970년 11월21일 오전 10시부터 횃사 협의회 사무실에서 실시된다.

◎ **바브콕협회 총회** : 본 협의회 총회가 1970년 12월5일 오전 10시부터 바브콕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되는데 상기 두 총회의제는 70년도 경과보고와 71년도 사업계획 및 중계도입계획의 검토 의 기타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 **필취육계강습회** : 1970년 11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특별시 여성회관에서 전국 육계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세계적 가금육종 및 병리전문가인 Van Zandt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한다.

◎ **바브콕 강습회** : 1970년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여성회관에서, 동년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부산에서 전국 양계가를 대상으로 최근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닭의 질병문제에 대하여 일본 가금병리학계의 권위자인 木内明壽씨를 초청하여 각각 개최한다.

□ 제일산업 이경산부장 방일 귀국 □

제일산업주식회사 영업부장 이경산씨는 10월 31일 KAL기 편으로 향일하였는데, 이 영업부장은 8일간 예정으로 일본의 사료공업계와 기타관계업체를 시찰하고 11월 9일 KAL 기편으로 무사히 귀국하였다.

□ 대한사료 □

대한 사료는 새로이 김기용(서울농대 축산과) 김희석(전대축대졸)씨를 채용, 영업부 근무

□ 농림부 도계장 설치 □

농림부는 닭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닭도 소, 돼지, 말과 같이 도계장(屠鷄場)에서만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마리당 150원에 이르는 유통마진을 70원 이하로 줄일 방침이라 한다.

(1970. 10. 22. 한국일보에서)

한편 본 협회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는대로 금년말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내년도에 서울, 부산, 대구등지에 정부직영의 도계장을 짓거나 지정하여 중간마진을 줄여, 부당한 중간마진의 폭을 줄일 예정이라 하며 관련업체나 생산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천호부화장 목포 강습회 □

천호부화장에서는 지난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대학에서 강습회를 가졌는데 이날 천호부화장 상무 김영환씨가 강사로 나와 육추의 기본원칙과 질병예방 관리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참석자들과 양계전반에 걸친 토론을 벌여 100여명의 목포근교 양계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 양계수첩발간—부화협회 □

부화협회에서는 71년도용 부화수첩을 11월말에 발간할 예정이라 하는데 이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하여 각계의 편집위원들이 편집하였다. 수첩의 가격은 권당 100원이라하며 관심 있는 분은 전화 8852 한국부화협회로 문의해 주기를 바란다 한다. 수고해준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회 위원장 최창해
- 편집위원 : 김중곤(현대양계주산)
- 김영환(천호부화장상무)
- 김영옥(월간양계 총무부장)
- 박근식(안양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 임병규(동신 종축장 전무)
- 오세정(전대 축대교수)

- 장용식(양계경영 사장)
- 한인규(서울농대 교수) <無順>

□ 대규모 사료 연불도입 계획 □

정부는 특정업자에 대한 양곡 연불수입을 승인할 것 같다. 16일 재무부에 의하면 원통산업에 대해 450만 달러(약 14억원 상당)어치의 사료용 옥수수를 1년 연불 조건으로 수입, 국내에서 팔도로 농림부의 추천을 거쳐 재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소식통은 진축재정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통화의 환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연불 조건으로 사료를 대규모 수입하도록 허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나 의한 당국자는 「160일짜리 정상조건」이라고 연불 기한을 흐리며 이를 감싸고 있어 자칫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공산이 크다.

(11월 17일 동아일보에서)

□ 축산장려관 개관 □

축산진흥회에서 추진해오던 축산장려관이 11월 12일 정오에 동회관 강당에서 많은 내외인사를 모시고 개관식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용되게 되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회관건립을 위해 애써준 농림부장관과 기타 독지가에 대한 상장 증정이 있었다.



(동개관식 광경)